

한 '늦깎이' 시인이 전하는 삶의 쓸쓸한 풍경

《발자국들이 남긴 길》 펴낸 고창환씨

“시인도 평범한 생활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고 함께 어울리는 이들과 크게 다를 게 없지요. 문학하는 사람들, 특히 시 쓰는 이들 중에 그렇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를 쓰거나 쓰려고 하는 사람과 시를 읽는 사람이 한정된 탓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고창환 시인(40, 부평여공고 국어교사)에게는 '늦깎이'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우선, 그는 등단을 늦게 했다.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오월〉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서른 중반의 데뷔는 좀 늦은 편이다. 그렇다고 그가 대기만성형의 시인은 아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등단이 늦었다.

시인도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습작을 했지요. 개인사 때문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7, 8년간 시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개인사란 형의 돌연한 죽음이다. 1987년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버지보다 더 믿고 따르던 형이라 그의 충격은 컸다. 시집 《발자국들이 남긴 길》(문학과지성사)에서 '시인의 말'도 형에 대한 헌사로 대신하고 있다.

“10년이 넘어도 어떤 상처는 / 느닷없이 필떡이다. / 평범하지만 착한 삶을 살다 간 / 나의 형에게 이 시집을 바친다.”

형에게 바치는 시집이지만 형에 관한 시는 한편도 없다. 형에 대한 추억을 시로 형상화하려 했지만 좀처럼 시가 되지 않았다고 시인은 토로한다. 그리고는 아직 형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인다.

《발자국들이 남긴 길》은 고창환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다. 불혹에 들어서면서 상재한 처녀시집 역시 늦은 편이다. “시집 출간에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시집은 시인에게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명색이 시인이라면 시집을 내야 그 이름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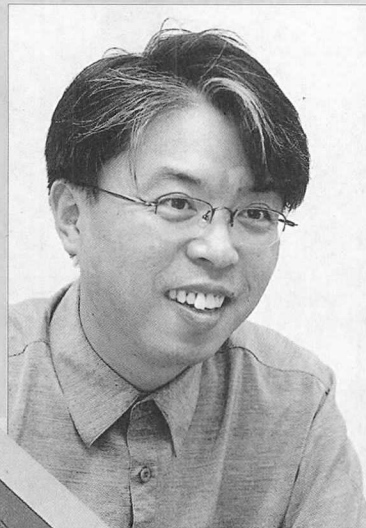
고창환 시인은 흔적을 남긴다는 점에서 첫시집에 의미를 둔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그가 어느 시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인은 우주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낭만적인 시인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인도 평범한 생활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고 함께 어울리는 이들과 크게 다를 게 없지요. 문학하는 사람들, 특히 시 쓰는 이들 중에 그렇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를 쓰거나 쓰려고 하는 사람과 시를 읽는 사람이 한정된 탓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나는 목구멍 밥알 선생”

하지만, 일상의 삶을 소재로 시를 쓴다는 고창환 시인의 시편 가운데 삶의 단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작품은 드물다. 이런 점에서 〈내 동료 K선생〉은 예외적인 작품이다.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이 작품은 사는 방법을 세가지로 나눈다. “상한 밥알까지 먹어치우며 살거나 / 목구멍에 밥알을 걸고 살거나 / 기꺼이 찬밥이 되는 것이다.”

이 중 고창환 시인은 “목구멍 밥알 선생”에 속하고, 작품의 모델이 된 김동호 교사는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당하는 등 “기꺼이 찬밥을 택”한



고창환씨

문학과지성사
B6변형/116면/5000원

경우다. 세가지 방식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파, 잘못은 알지만 애써 못 본 척하는 소시민, 잘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딛고 나가는 야심가가 추구하는 삶의 길을 가리킨다.

이 시집에는 '길' '발자국' '바람' '틈새' 같은 시어의 출현 빈도가 높다. 이에 대해 고창환 시인은 “길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발자국은 삶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바람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틈새는 틈새의 길 또는 자질구레한 길이라고 할까요”라며 자평(自評)한다. 아무튼 이런 시어들 때문에 시집의 전체적 기조는 쓸쓸하고, 마멸된 삶의 흔적이 진하게 배어 난다.

고창환 시인은 지난 2월 석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소시민적 일상에 대한 인식과 자기성찰을 중심으로 살펴본 〈김수영 시 연구〉였다. 석사 과정에 들어갈 때부터 일찌감치 김수영을 논문 주제로 정했다. 시인과 작품을 좋아한 데다가 김수영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인인 까닭이다. 박사과정을 밟을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가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망설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공부에 시를 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안 서고,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의 진로 또한 막연해서다.

— 최성일 기자